일 주 문



경허 열반 105주년 추모다례재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5월 19일 수덕사에서 경허 스님 열반 105주년 추모 다례재를 개최했다.



제15차 해외성지순례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부탄에서 제15차 해외성지순례를 개최한다.



제36차 전국불교청년대회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북청소년수련원에서 제36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스타트업 인식개선 최우수상 수상

김아나 '무아' 공동대표는 5월 25일 연세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스타트업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생명 가치 알리는 '희망걷기대회' 열려

생명나눔, 5월 20일 '제10회 희망걷기대회'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제10회 희망걷기대회를 5월 20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개최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생명존중 사상과 자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희망걷기대회는 올해 10회를 맞은 만큼 더욱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가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은 남양주 광동고 · 의정부 광동고 · 광동중 · 영석고 · 동대부고 등 불교 종립학교 학생들과 봉선사 주지 일관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현조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씨,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탤런트 김혜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동국대 만해광장부터 남산 북측순환로 4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종립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총 750여장의 헌혈증과 자비의 쌀 300kg, 성금 약 150만원을 생명나눔 측에 전달해 부처님 제자로서 자비사상을 몸소 실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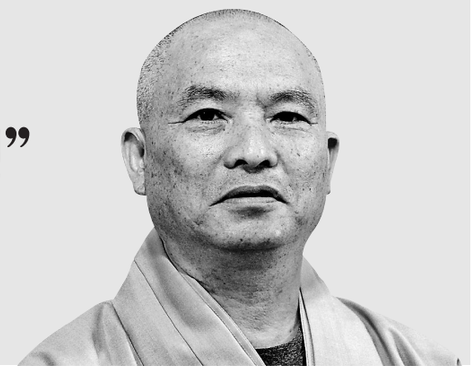
김선경(남양주광동고 3) 학생은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하고 장기기증문화를 확산시키고자 3년 연속 참여하고 있다"면서 "많은 친구들이 헌혈증 기부를 통해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아름 기자

"북녘땅 코앞에 통일불교문학관 건립"

Interview

〈불교문예〉 발행인 혜관 스님



북한 작가들 작품 접하며
통일불교문학관 건립 꿈꿔
통일동산 내 5월 13일 착공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
북카페 · 통일법당 등 들어서

북한땅이 훤히 보이는 파주 통일동산에 〈불교문예〉 발행인 혜관 스님(사진)이 통일불교문학관을 건립한다. 혜관 스님은 1989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한 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불교문학포교원을 운영하며 몇 권의 시집을 출간했다. 혜관 스님은 이 가운데 쌓인 문학에 대한 열정이 문학관으로 열매를 맺게 됐다고 5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했다.

"〈불교문예〉 발행인을 맡으며 여러 자료에 대한 귀중함을 몸소 느끼고, 초간본 및 고서적과 희귀본 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근대문학과 일제강점기 때 작가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는데, 월북작가 및 납북작가들의 책도 접하다보니 통일문학관 건립을 꿈꾸게 됐습니다."

5월 13일 착공한 통일불교문학관은 경기도 파주 탄현면 대동리 52-2에 위치한다. 건축면적 약 4,099㎡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다. 이곳은 혜관 스님이 20여 년 전 책을 보거나 글을 쓰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농가주택인데 통일불교문학관 불사에 대한 의지로 이번 착공식을 진행하게 됐다.

"이곳은 북한과 인접해 대북방송이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곤 합니다. 이념에 관한 작품을 읽으며 남북의 휴전선을 보니 통일문학관과 법당을 지어야겠단 마음을 먹게됐습니다."

지하 1층과 2층은 스님들 숙소 및 수장고로 활용된다. 또 1층은 문학관과 북카페, 2층은 통일기원법당이 들어선다. 문학관에는 근대 및 현대문학 희귀본과 〈묘법연화경〉 14세기 목판본, 백용성 스님 저술 〈한글화엄경〉, 만해 한용운 스님의 〈불교유신론〉 등 불교문학서가 전시된다. 개관 후에는 문학관에서 문학강좌 · 세미나 · 시화전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층 평화기원법당은 북한을 향해 불단을 조성하고 벽면을 통유리로 장식, 탱화 대신 북한땅이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혜관 스님은 "평화기원법당에서는 취지에 맞는 법회를 열고 이산가족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실향민들을 위한 기도회도 열 것"이라며 "또한 인근에 위치한 한길 박물관 등 5개 박물관과 연계해 둘러볼 수 있는 관광코스 개발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불교문학관은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다.

혜관 스님은 1976년 해남 대흥사에서 기산 스님을 은사로, 응기 스님을 계사로 출가했다. 이후 법주사 강원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했으며, 개운사 주지 등 역임한 바 있다. 1918년 9월 만해 한용운 스님 주도로 창간됐던 월간 〈유심〉의 편집인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계산 〈불교문예〉 발행인으로서 불교 문인 배출에 앞장서 왔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설법 · 토론, 현대 필요한 승가교육"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토론과 대중을 교화하는 설법은 현대의 승가에게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학인대회는 현대 승가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사진〉은 '제1회 조계종 학인 설법대회'를 앞두고 5월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일련의 학인대회의 의미를 설파하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조계종 교육원은 학인 스님들의 전법 역량 강화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염불 · 외국어 스피치 · 토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인 대회를 개최했다. 학인 스님들의 재치와 뛰어난 능력들이 이들 대회를 통해 선보여졌고, 불교계 안팎으로 화제가 됐다.

오는 6월 1일 열리는 제1회 설법대회 역시 준비가 한창이다. 안거 중인 기본선원을 제외한 17개 종단 기본교육기관의 학인 39팀(사미 24명, 사미니 16명)이 출전한다.

진각 스님은 이번 대회에서도 신세대 학인 스님들이 상상 이상의 설법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유 주제로 8분 내에 설법을 시연하는 이번 대회에는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설법', '법구와 음악을 활용한 설법', '2인 설법', '영어 설법' 등 기존 설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설법 방법들이 선보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인 스님들의 재치있는 설법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성민 기자

"신행단체 대표, 대학행 법사로"

장상목 부산교수불자연합회 신임 회장



"이대로 가면 불교의 미래는 사라지고 맙니다. 젊은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특히 대학생 포교가 중요하기에, 부산지역 각 신행단체에 명예법사를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부산교수불자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장상목 동아대 교수〈사진〉는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둘 것임을 밝혔다.

장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동선원 故혜월당 강만성 거사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해왔다. 〈불교보감〉 〈성불의 길잡이〉 〈금강반야바라밀경 강론〉 등 다수의 불교서적을 편찬 할 정도로 불심이 깊다. 3월 1일 취임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장 교수는 "적극적인 대학교 불교학생회 지원을 위해 각 신행단체 및 기관 대표를 명예법사로 초빙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에게 교리를 설명하기 보다 인생 선배로 경험을 나누고, 멘토가 되고 싶다. 출재가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끝으로 "정보화시대 신비주의와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보편성과 평등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불교가 사회변화에 도태되지 않고 현대인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기자

한 · 미 불자들의 LA 佛音 공양



국제포교사회 연꽃향기합창단과 LA불교연합합창단은 5월 7일 LA고려사에서 연합합창 공연을 펼친데 이어 서래사 참배 등을 진행했다. 연합합창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정설화 씨와 11세의 김서현 어린이, 국제포교사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 합창공연을 참관한 LA달마사 주지 정범 스님은 "연합합창단에게 지역 불교계를 대신해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현성정사 어르신 경로잔치 개최



서울 현성정사(주지 현성)는 5월 6일 현성정사에서 어르신 150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어르신경로잔치에서는 음식공양과 함께 초청가수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의 고민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현성 스님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현성 스님은 5월 1일 안양교도소에서 재소자 2000명을 대상으로 대중공양을 올린데 이어 8일에는 혜명양로원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열었다.

노덕현 기자

생명문화축제서 부모은중경 시연



생명의 탄생과 삶, 죽음을 주제로 5월 18~21일 개최된 2017 성주생명문화축제에서 성주사암연합회가 '부모은중경' 인경 체험과 서각을 시연하는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부모은중경'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보답할 것을 가르치는 불교경전이다.

성주사암연합회장 정도 스님(청매암 주지)은 "체험행사를 통해 잠시 잊고 있던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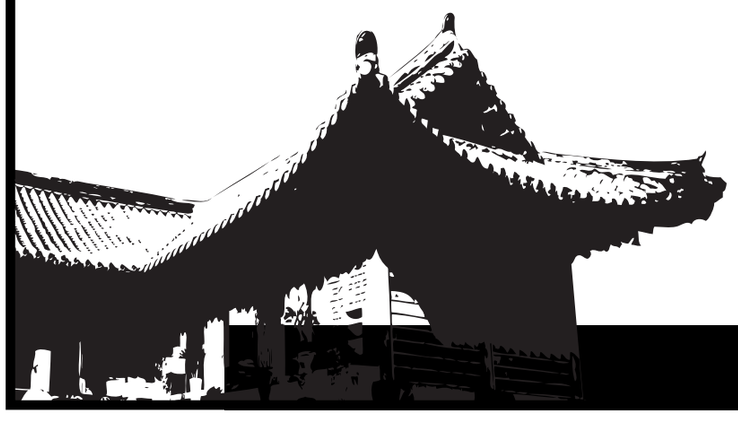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